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한 영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손자국을 담은
백자 다기 제작 연구

- 복합 성형 기법을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 예 학 과

권 성 은

손자국을 담은
백자 다기 제작 연구

- 복합 성형 기법을 중심으로 -

한 영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 예 학 과

권 성 은

인 준 서

권성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장_____인

심 사 위 원_____인

심 사 위 원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급속한 경제 성장과 기술의 발전은 현대인에게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하지만 기계중심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정서적 가치를 갈망하게 되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기며, 자신만의 개성 있는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이러한 양상은 바쁜 일상 속에서 차를 마시는 잠깐의 여유를 통해 정신과 육체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며 차 문화의 활성화를 이끌어주었다. 이에 발맞춰 다기의 개발에도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전통의 다기는 쓰임의 측면에서는 유용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디자인에 있어서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근래의 다기제작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다기는 새로운 형태에 초점을 두어 제작되는 경우가 많고, 또 조형적 미감에만 충실하여 쓰임새는 후자로 밀려나기도 한다. 다기는 실용적이어야만 일상에 두고 자주 사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자는 사용자의 손에 잘 들어맞아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또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어 제작하여야 한다.

다기는 제작자의 손으로 만들어지며, 사용자의 손에 의해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손’이 다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손’이 나타내는 조형성과 ‘손’이 받아들이는 실용성을 함께 담은 다기제작 연구를 시작하였다.

다기의 기본형은 조선 백자의 풍만하고 복스러운 기형 중에서 다기에 적합한 세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원호의 형태에서 가져온 항아리

형과 떡메병의 물방울형, 지통(紙筒)의 원통형을 차용하였다.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는 ‘손’의 개념을 조형적으로 활용하여 핸드빌딩 성형 방법과 물레 성형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방식을 도입하였다. 핸드빌딩의 성형 방법을 통해 직접적인 손자국을 기물의 표면에 드러내면서 조형성을 부여하였고, 이에 사용의 용이함을 위하여 물레성형을 더하여주었다. 그리하여 물레 성형과 코일링 성형의 조합을 성형 범위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였고, 더불어 물레 성형의 기물에 핀칭 성형을 장식적 요소로써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성형 기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손이 만들어내는 조형적 미감을 담아낸 실용적이고 기능적으로 편리한 다기 제작이다. 이를 토대로 제작된 다기를 찻자리에서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제작과정에서 제작자의 남겨진 손자국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서로의 감성을 교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핸드빌딩 성형의 조형적 요소와 물레성형의 실용성이 만나 미감과 쓰임새 모두를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나아가 어렵고 불편한 차 문화에서 벗어나 가깝고 친근한 문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산과 용이성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아가고자 한다.

주요어 : 차 문화, 다기, 손, 핸드빌딩 성형, 복합 성형

목 차

논문개요 ····· i

도판목록 ····· v

작품목록 ····· vii

Ⅰ. 서론 ····· 1

1. 연구 동기와 목적 ····· 1

2. 연구 범위와 방법 ····· 2

Ⅱ. 본론 ····· 4

1. 차 문화와 차 도구 ····· 4

1) 우리나라 차 문화 ····· 4

2) 차 도구 ····· 5

(1) 차 도구의 정의와 종류 ····· 5

(2) 차 도구 제작 사례 ····· 10

2. 손과 흙 ····· 13

1) 손의 의미 ····· 13

2) 도자공예에서의 손 ····· 15

3) 손으로 흙 다루는 성형 방법 ····· 16

(1) 핸드빌딩 성형 방법 ····· 16

(2) 물레 성형 방법 ····· 19

4) 복합 성형 방법 ····· 20

(1) 슬립캐스팅 성형과 물레 성형의 복합 ····· 20

(2) 슬립캐스팅 성형과 물레 성형, 기계 물레 성형의 복합 ··· 21
(3) 물레 성형과 핸드빌딩의 성형의 복합 ····· 22
3. 작품제작 ····· 22
1) 제작 의도 ····· 22
2) 제작과정과 작품 설명 ····· 23
(1) 형태 ····· 23
(2) 복합 성형 방법으로 제작한 작품 ····· 24

Ⅲ. 결론 ····· 38
참고문헌 ····· 40
ABSTRACT ····· 42

도 판 목 록

[도판 1] 찻주전자의 유형 ····· 7
[도판 2] 뚜껑 받침 ····· 7
[도판 3] 찻잔과 찻잔 받침 ····· 7
[도판 4] 식힘 그릇 ····· 8
[도판 5] 찻통과 차 숟가락 ····· 8
[도판 6] 물 항아리와 표자 ····· 8
[도판 7] 버림 그릇 ····· 9
[도판 8] 다식접시 ····· 9
[도판 9] 1인 다기 ····· 9
[도판 10] 인현식의 차 도구 ····· 10
[도판 11] 이혜원의 차 도구 ····· 11
[도판 12] 강기호의 차 도구 ····· 12
[도판 13] 세븐비의 차 도구 ····· 13
[도판 14] 이춘복의 작품 ····· 17
[도판 15] 막달레나 오둔도의 작품 ····· 18
[도판 16] 도리스 뱅크의 작품 ····· 18
[도판 17] 김그림의 작품 ····· 18
[도판 18] 이기조의 작품 ····· 19
[도판 19] 고희숙의 작품 ····· 20
[도판 20] 이민수의 작품 ····· 21
[도판 21] 이민수 작품의 세부 ····· 21
[도판 22] 김정화의 작품 ····· 22

[도판 23] 백자 철화 대나무 무늬 항아리 ····· 23
[도판 24] 청화 백자 산수문 떡메병 ····· 23
[도판 25] 청화 백자 사군자문 지통 ····· 24
[도판 26] 변형 원통형 ····· 24
[도판 27] '물레·코일링 복합 성형 - 1'의 구성 ····· 25
[도판 28] '물레·코일링 복합 성형-2'의 구성 ····· 29
[도판 29] '물레·핀칭 복합 성형'의 구성 ····· 31
[도판 30] 백자 톱니문 장식 제기 ····· 32
[도판 31] [작품 8]의 세부 ····· 32
[도판 32] [작품 12]의 세부 ····· 35
[도판 33] [작품 14]의 세부 ····· 36

작 품 목 록

[작품 1] 찻잔 - 1 ····· 26
[작품 2] 찻잔 - 2 ····· 26
[작품 3] 1인 다기 - 1 ····· 27
[작품 4] 1인 다기 - 2 ····· 28
[작품 5] 6인 다기 - 1 ····· 29
[작품 6] 2인 다기 - 1 ····· 30
[작품 7] 2인 다기 - 2 ····· 31
[작품 8] 1인 다기 - 3 ····· 32
[작품 9] 찻주전자 ····· 33
[작품 10] 3인 다기 ····· 33
[작품 11] 1인 다기 - 4 ····· 34
[작품 12] 찻잔 - 3 ····· 35
[작품 13] 5인 다기 ····· 35
[작품 14] 6인 다기 - 2 ····· 36

Ⅰ. 서론

1. 연구 동기와 목적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풍요로운 생활환경과 편리함 속에서 살아왔다.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행해지던 일들이 기계화되면서 우리의 몸은 이전에 비해 훨씬 편안해졌고, 의식과 생활, 그리고 문화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풍요로움과 편안함 뒤에는 각박하고 메마른 일상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정서적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내면에서는 삶의 편리함 못지않게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차 생활은 일상에서 작은 만족감을 주며 이러한 내적 욕구를 채워줄 만한 요소 중 하나이다. 차를 마시는 자리를 통해 차를 음미하고 대화를 나누며 생기는 마음의 여유와 정서적 만족감은 일상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차는 우리 시대의 문화 소통 창구의 하나로써 자리매김하며, 정신과 육체에 휴식을 주는 음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찻자리에는 차를 마시는 공간인 차실(茶室)부터 차 도구(茶道具)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다기(茶器)라 할 수 있다. 찻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기는 유리나 금속,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도자기로 만들어지고 사용된다. 도자기로 만들어진 다기는 많은 경우에 물레 성형으로 제작된다. 물레 성형 방법은 같은 크기의 기물을 다량으로 생산하는 데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고, 형태의 미묘한 변화에 보다 자유로워 뚜껑과 같은 요소를 성형할 때 이격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

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기는 식기의 일부로서 사람의 손에 직접적으로 닿으며 사용되기 때문에 '쓰임'의 요소 즉, 적당한 용량과 크기, 무게감, 절수(節水) 등의 사용에 요구되는 용이함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제작과 사용에 있어서 다기는 우리의 '손'과 만나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연구자는 '손'이 느끼는 사용의 유용성과 '손'으로 표현되는 형태의 조형성을 담은 다기 제작에 초점을 맞추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다기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쓰임새가 1차적으로 갖추어진 다음에 다기의 조형성과 예술성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만 실용기(實用器)로써 의미있는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손'으로 표현되는 조형성인 손자국을 다기에 담아 촉각적 감각을 부여하고자 한다. 동시에 실용성을 더하기 위해 물레 성형 방법을 한 기물 안에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조형적 요소를 표현함에 있어 실용성을 잃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로써 손자국을 담은 다기 제작을 통해 성형방식에 차별성을 주고, 사용에도 무리없는 기능적이고 편리한 다기를 이끌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주는 크게 세 가지의 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장은 차 문화와 차 도구의 연구이다. 이 장에서는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차 문화의 흐름과 현재의 차 문화 양상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주로 사용되는 잎차용 다구의 종류와 그에 따른 쓰임, 그리고 실용과 기능, 용도, 조형성 등에 초점을 둔 차 도구 제작 사례를 살펴

보며, 연구자의 작품 제작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연구자가 제작 방식으로 접근한 손 성형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손이 가지는 의미와 도자공예에서 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손으로 흙을 다루는 방식인 핀칭과 코일링, 판성형 그리고 물레성형 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며, 각각의 성형 방법에 의해 작품에 담기는 조형성과 미감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 이를 적용한 도예가의 작품 사례를 살펴보고 연구자 작품과의 연관성과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작품 제작에 대한 내용으로 형태와 기법 등의 제작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연구자의 작품을 제작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작품에 대하여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작품 제작에 앞서 기물의 형태와 소지, 유약의 사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범위를 정하였다. 소지는 차를 우리고 마실 때 차의 색감을 보며 눈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백자 소지로 한정한다. 기물의 형태는 조선백자의 기형에서 사용과 제작에 용이한 형태를 선별하여 적용한다. 유약 또한 백자의 깨끗함과 단아함이 돋보이고, 표면에 나타난 손자국의 표현이 특징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명유와 매트유로 제한하여 사용할 것이다. 소성은 900℃의 초벌 소성 후, 백자의 푸른빛을 담아내기 위하여 1250℃에서 환원 소성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조형성을 부여하는 핸드빌딩 성형과 실용성과 제작의 용이함을 위한 물레 성형의 복합 성형 방법을 이용한 백자 다기 제작 연구이다. 다기의 제작에 사용된 성형 방법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조형성과 미감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Ⅱ. 본론

1. 차 문화와 차 도구

1) 우리나라 차 문화

우리나라 차 문화의 시작은 삼국시대 말기 중국으로부터 불교문화가 전해지면서 부터이다. 이후 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까지 차를 마시는 풍습이 왕실에서도 행해졌고, 귀족뿐만 아니라 승려, 평민들에게까지 확산되어 매우 번성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불교문화의 퇴보로 인하여 평민들의 차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그라지며 급속히 쇠퇴하였고, 학자들이나 승려들에 의해서 명맥을 유지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제강점기 이후까지 이어졌고,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경제적 여건 및 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만이 누리는 문화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발전과 산업화로 현대인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차 문화는 현대인의 문화생활과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문화코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차와 사람이 한 공간에서 만나 차를 우리고 마시며 마주하는 차의 색감, 향, 맛, 온도 등의 여러 요소들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적인 정서적 만족감, 그리고 타인과 마음 속 깊은 대화를 통한 정신적 교감과 육체적 휴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차는 현대인에게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차'는 찻잎을 우려내어 마시는 차보다 간편한 티백이나 커피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잎차'는

우려마시는 과정에 많은 다구들이 필요하고, 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불편하고 번거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곳저곳 생겨나는 수많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테이크아웃 시스템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인스턴트커피가 일상화되고 있다. 또한 커피향이 첨가된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과의 접목으로 자연스러운 퓨전현상이 대중화되었다.[1] 이러한 흐름으로 인하여 현대인들의 입맛은 단조롭고 깊은 맛의 차보다 커피와 같이 향이 짙고 자극적인 음료에 차츰 젖어들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전남 보성군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간 국내 커피 수입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보성 녹차 밭의 재배면적과 농가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마트의 판매량 또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2] 커피의 대중화 역시 우리 차 문화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유입된 커피문화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차의 대중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균질한 품질의 차 생산, 음료 제조과정과 다구의 간편화와 신속함, 대중에게 거부감 없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디저트와의 접목 등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손꼽아 볼 수 있다.

이에 맞춰 차를 더욱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 차 문화 관련 단체가 많아지고, 다도 강좌도 인기다. 또한 차 박물관과 축제 및 박람회, 그리고 차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공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3] 최근에는 인기를 얻으며 부상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오설록'과 같은 차 전문점도 다수 생겨나고 있다. 그간의 전통적인 분위

---

1) 김미숙, 〈<전통차 자동 음료기기>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 사무공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p.39~45.
2) 〈이마트, 보성녹차 소비 촉진 나섰다〉, 연합신문, 2012.06.03.
3) 김효은, 〈한국 차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화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2.

기에서 벗어난 세련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함께, 젊은 세대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메뉴들의 개발로 한층 더 가까이에서 차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 녹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차가 우리의 고유한 문화로서 자리를 잃지 않고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 문화의 원형을 유지해 나가되 지나친 격식과 예절을 간소화하여, 대중이 편안하게 즐기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연구와 개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차 도구

(1) 차 도구의 정의와 종류

차의 역사는 중국에서 시작하였으며,[4] 우리나라는 7세기 초 신라 선덕여왕 때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하였다고 《삼국사기 三國史記》에 전해진다.[5] 차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변화해 옴에 따라 차 문화의 발달과 함께 차 도구가 생겨나고 개발되어 왔다. 차 도구는 나무나 유리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지만,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이 가장 많다. 차 도구를 제작하는 많은 도예가들은 전통을 바탕에 두어 재현해 내는 것부터 자기만의 개성을 담은 현대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제작

---

4) 기원전 59년에 작성된 전한(前漢)의 선제(宣帝)때 왕포(王褒)라는 선비가 쓴 문서인 <동약>이라는 기록에 따르면 '무양(武陽)에 가서 차를 사오는 일'과 '손님이 오면 차를 달여서 대접하는 일'이 포함되어있다. 차의 정확한 기원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이미 고대에 차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분명한 기록으로 알려진다.
이진수· 이진미, 〈사람들은 언제부터 차를 마셨을까? - 차의 기원설〉, 《찻잎 속의 차》, 이른아침, 2008.08.14. [네이버 지식백과]

5) 정동효· 윤백현· 이영희, 〈차의 역사〉, 《차생활문화대전》, 홍익재, 2012.07.10. [네이버 지식백과]

하고 있다. 각각의 특성이 담긴 차 도구 모두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특징을 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실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도 기능성과 편리함을 기본적으로 담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차를 마실 때 쓰는 도구를 지칭할 때 '차 도구', '다구', '다기' 등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채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차 도구(茶 道具)'는 '다구'와 '다기'를 포함하는 차와 관련된 모든 것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다. 그 안에 좁은 의미로 '다구'와 '다기'가 있다. '다구(茶具)'는 다기보다 큰 의미로 다기를 포함하여 차실 안의 장식물까지 총칭하는 말이다. 그리고 차를 우리고 마시는데 쓰이는 모든 그릇들을 '다기(茶器)'라고 한다.[6] 다구는 차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가루차용 다구와 잎차용 다구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잎차용 다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잎차용 다구에는 찻주전자, 뚜껑받침, 찻잔과 찻잔 받침, 식힘 그릇, 찻통과 차 숟가락, 물 항아리와 표자, 버림 그릇 등 여러 도구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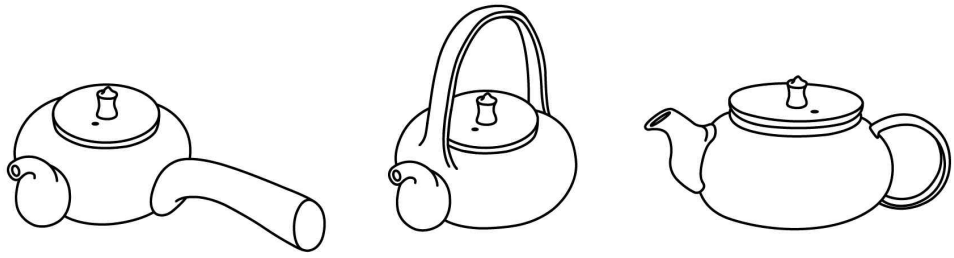
① 찻주전자

찻잎을 넣고, 끓인 더운물을 부어 우려내는 용기로 '다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물이 나오는 물대와 손잡이, 뚜껑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각 부분은 서로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능적으로는 '삼수삼평(三水三平)'[7]이 잘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꼭

6) 신수길, 《차 생활의 모든 것, 차도구》. (사)한국차인연합회· 이른아침, 2012, p.48.
7) 삼수삼평(三水三平)
삼수(三水) : 물대에서 물이 나오는 것, 물대 끝에서 찻물이 맺혀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잘 끊어지는 것, 찻주전자의 구연부와 뚜껑의 크기가 꼭 잘 맞아서 뚜껑에 있는 구멍을 막았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한 찻물을 따라낼 때 찻잎이 밖으로 같이 흘러나오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몸통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거나 거름망을 따로 제작하는 것이 좋다.

찻주전자는 물대와 손잡이가 붙는 각도와 위치에 따라 [도판 1]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뉜다. 물대와 손잡이가 90°를 이루는 옆 손잡이형, 뚜껑 위로 붙어있는 윗 손잡이형, 물대와 손잡이가 180°를 이루는 뒷 손잡이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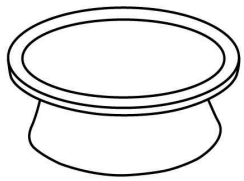


옆 손잡이형　　윗 손잡이형　　뒷 손잡이형

[도판 1] 찻주전자의 유형

② 뚜껑 받침

‘개반’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찻주전자, 찻통, 탕관, 물 항아리 등의 뚜껑을 받쳐놓기 위한 도구이다. 도자기나 돌, 나무 등으로 만들어지고, 다양한 형태와 종류가 있다.[8] 차를 마실 때 보다 위생적인 사용에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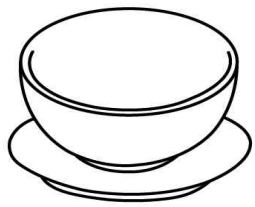
[도판 2] 뚜껑 받침

때 물이 물대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 것을 가리켜 삼수(三水)라 한다.
삼평(三平) : 찻주전자를 뚜껑을 뺀 후, 뒤집어 놓았을 때 물대와 구연부, 손잡이 윗부분의 높이가 수평을 유지하는 것을 삼평(三平)이라 한다.

8) 신수길, 《차 생활의 모든 것, 차도구》. (사)한국차인연합회· 이른아침, 2012, p.172.

③ 찻잔과 찻잔 받침

찻주전자에서 우려낸 차를 나누어 마실 수 있는 그릇과 그것의 받침이다. 찻주전자의 용량에 따라 찻잔의 개수가 달라진다. 찻잔은 손잡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손으로 감싸 안듯 잡으면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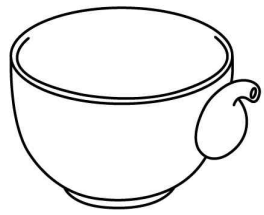


[도판 3] 찻잔과 찻잔 받침

찻잔 받침은 주로 찻잔과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지만, 잔과 받침이 부딪치는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 나무나 한지, 천으로 만든 것을 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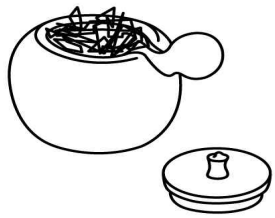
④ 식힘 그릇

'숙우'라고 불리기도 하는 식힘 그릇은 차를 우리기 위하여 찻주전자에 물을 붓기 전에 끓인 물을 알맞은 온도로 식히거나, 우려낸 찻물을 한꺼번에 부어 찻잔에 나눌 때 사용한다. 찻주전자에 들어가는 물의 양과 비슷한 용량이어야 한다. 그래야 찻주전자나 식힘 사발에 찻물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찻물이 남게 되면 다음 우릴 때에 남은 차와 섞여 신선한 차의 맛을 느끼기 어렵다. 또한 찻주전자와 마찬가지로 물을 따를 때 흘러내리지 않아야 한다. 이 기능이 좋지 않으면 물이 그릇을 타고 밖으로 흘러내려 찻자리가 지저분해지고, 손님과 함께 한다면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판 4] 식힘 그릇

⑤ 찻통과 차 숟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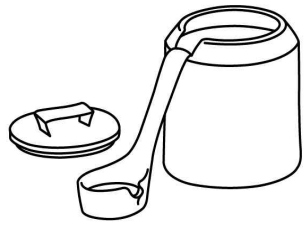


[도판 5] 찻통과 차 숟가락

‘차호’, ‘차합’이라고도 불린다. 잎차나 가루차, 덩이차를 덜어 담아두는 통이다. 일반적으로 항아리 형태에 뚜껑이 있다. 가루차를 담아두는 아주 작은 것부터 덩이차를 담아두는 큰 것까지 다양하다. 찻통의 구연부가 크면 사용에는 편리하지만 차가 냄새와 습기를 쉽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좁은 것이 좋다. 또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덜지 않고 자주 덜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9)]

차 숟가락은 가루차나 잎차를 덜어낼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차측’, ‘차시’라 하기도 한다. 보통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많이 사용한다.

⑥ 물 항아리와 표자



[도판 6] 물 항아리와 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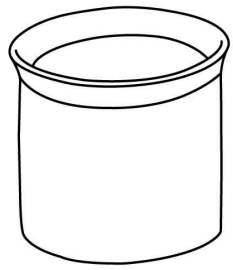
차를 우려낼 때 쓰이는 물을 담아두기 위한 그릇이다. 일반적으로 유약이 덮인 자기를 많이 사용한다. 유약이 덮인 자기는 고온에서 소성하여 유약 표면이 유리질로 자화되어 세척에 용이하여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을 담고, 떠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크기와 구연부가 큰 것이 좋다.

표자(瓢子)[10)]는 표주박과 같은 말로 물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 사용하는 국자와 같은 도구이다. 보통 대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많이 사용한다.

9) 신수길, 《차 생활의 모든 것, 차도구》. (사)한국차인연합회· 이른아침, 2012, p.69.
10) 표자(瓢子) : 표주박. [국립국어원]

⑦ 버림 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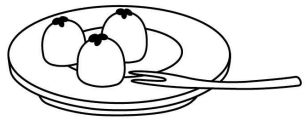
‘퇴수기’라고도 하는 버림 그릇은 찻주전자나 찻잔을 예열할 때 썼던 물이나, 차를 마신 뒤 남은 찻물과 차 찌꺼기를 버릴 때 사용한다. 대부분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 많은 양의 물이 담길 수도 있기 때문에 크기는 가능하면 큰 것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도판 7] 버림 그릇

⑧ 다식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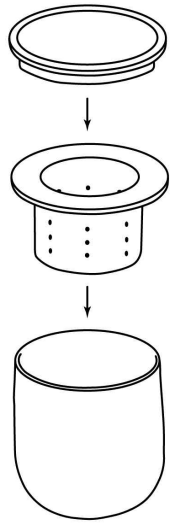
손님 앞에 다식 등의 작은 음식을 담는 접시이다. 도자기뿐만 아니라 유리나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개인으로 사용할 때에는 작은 크기의 것이 좋다.



[도판 8] 다식접시

⑨ 1인 다기

일인용 다기는 예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혼자 차를 마시거나, 여러 개의 다구를 사용하지 않고 간편하게 잎차를 우려 마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컵 형태의 잔 안에 거름망이 들어가고, 그 위에 뚜껑이 덮여 하나로 조합이 된다. 크기가 작고, 휴대하기 좋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보관에도 용이하다. 이는 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바쁜 직장인이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도판 9] 1인 다기

⑩ 화병

차실의 분위기를 한층 화사하게 돋우는 역할을 한다. 크고 많은 꽃을 꽂아놓기 위해 크기가 큰 화병과 한두 송이만 꽂아 찻상에 올려놓는 작은 화병이 있다.

⑪ 다판, 찻상

차 생활에서 다기를 올려놓고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이 다판과 찻상이다.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다기를 올려 사용하기 때문에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안정감이 있어야 하며 판판해야 한다. 나무는 습기를 머금으면 뒤틀리거나 터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에는 물기를 닦아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⑫ 차화로(茶火爐)와 물솥, 탕관(湯罐)

차화로는 아랫부분의 통풍구에 숯을 넣어 불을 피우는 다구이고, 그 위에 올려놓고 물을 끓이는 도구로 물솥과 주전자인 탕관이 있다. 차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숯을 사용하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열기구나 알코올램프를 넣어 사용한다. 이제는 이것마저도 간편한 전기포트의 보급으로 잘 쓰이지 않게 되었으며, 전통의 방식을 보여주는 다례(茶禮) 시연에 사용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⑬ 향로(香爐), 향꽂이

향을 피우는데 쓰이는 도구이다. 향로는 향을 피우기 위해 불을 담는 그릇으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야 하기 때문에 구멍이 조화롭게 뚫려 있어야 한다. 향로는 불을 직접 피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가공된 선향을 꽂아 쓰는 향꽂이를 많이 사용한다. 향꽂이는 긴 선향을 꽂아 사용하기 때문에 재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침이 있는 것이 좋다.

(2) 차 도구 제작 사례

① 실용과 기능의 다기

실용과 기능에 중점을 둔 다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현식의 다기를 들 수 있다. 인현식의 다기는 조선백자를 모태로 하여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작업이다. 백자소지를 사용하여 깨끗하고 맑은 색감과 푸른빛이 돋보이며, 단아한 형태에서 정교한 미감을 느낄 수 있다. 찻주전자의 손잡이는 안정감이 느껴지며, 그 형태와 기능은 사용에서부터 뒤처리까지의 과정을 모두 고려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해 그의 작업은 실용성과 기능을 놓치지 않으며, 동시에 형태의 미감까지 생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녹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될 만큼 용이함을 갖추고 있다.

[도판 10] 인현식의 차 도구 (출처 http://blog.naver.com/ceramic17)

그의 다기표면을 살펴보면 매우 깔끔하고 매끈하여 기계성형이나 석고 캐스팅 성형으로 제작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모든 과정을 물레성형으로 제작한다.[11] 너무나 말끔하고 치밀한 외형에 수공의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연스러운 조각을 넣는다. 조각은 선을 다양한 두께로 변형을 주기도 하고, 꽃잎의 모양을 조각하기도 한다. 이는 다기의 조형성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요소로서 다가온다.

② 보관에 용이한 다기

보관의 용이성에 중점을 둔 다기로 이혜원의 다기를 꼽을 수 있다. 이혜원은 전통적인 차 도구가 사용과 보관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디자인의 다구함을 개발하여 구성하였다. 다구를 제대로 갖추어 차 생활을 즐기기에는 그 가짓수가 너무 많아 차실이라는 공간의 한계성을 가져온다. 생각의 전환으로 피크닉과 같은 야외활동에서도 차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에서 수납과 이동의 모티브가 나온 것이다. 이혜원의 다기는 사용의 즐거움과 동시에 차 생활에 새로운 흥미를 부여하는 다기라 할 수 있다.

각각의 도구들은 다구함에 정확히 들어맞아야하기 때문에 디자인 기획부터 완성된 형태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흙의 수축률까지 정확히 계산한 후 제작에 들어간다. 물레성형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타 재료의 다구에 비해 도자기로 만든 다구는 비교적 무게가 나가는 것을 감안하여 성형할 때에 두께를 얇게 제작하여 무게를 줄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였다.[12]

이혜원의 다기는 형태나 사용성에 있어서 유용하거나 기능적이라고 보

11) 인현식, 〈찻그릇 작업은 나의 길이다.〉, 《아름다운 삶을 가꾸는 차 이야기, 차인》, 한국차인연합회, 2011년 05/06월호, pp.128~131.
12) 이혜원, 〈현대인의 차생활을 위한 도제 차도구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29.

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보관과 이동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새로운 방향성의 접근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도판 11] 이혜원의 차 도구
(출처 이혜원, 〈현대인의 차생활을 위한 도제 차도구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③ 조형성을 강조한 다기

조형성을 강조하여 나타낸 다기로 강기호의 다기를 볼 수 있다. 강기호는 장식을 배제한 간결하고 절제된 기하학 형태의 차 도구를 코일링 성형 기법을 통해 만든다. 그의 차 도구는 실용적인 사용과 조금 거리가 있다. 기하학적인 형태의 물대나 손잡이 등의 요소가 조형적으로 디자인되어 실용에 중점을 둔 다기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강기호의 차 도구는 기하학적 조형성과 코일링 성형 방법에서 오는 표면질감의 효과를 강조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차 도구는 코일을 쌓아 올리고 손으로 만져주며 나타나는 표면질감을 통해 사용자에게 시각적 촉감을 가져다준다.[13] 손자국의 간격이 빽빽하고 일정하며 깊게 파이지 않은 것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기물의 표면을 만져주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13) 《작은탐닉, 반달미술관 기획전 세라믹라이프》,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 2013 p.53.

[도판 12] 강기호의 차 도구
(출처 강기호, 〈기하학적 요소를 이용한 차도구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④ 편의성을 고려한 다기

[도판 13] 세븐비의 차 도구 (출처 www.7bee.co.kr)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한 다기로 세븐비의 다기를 들 수 있다. 세븐비는 제품으로서 상업성을 담아 제작하기 때문에 반복생산의 용이함과 자유로운 형태를 위하여 슬립캐스팅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세븐비의 차 도구는 전통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느낌을 준다. 기존의 차 도구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갖추어져야만 차를 마실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세븐비의 차 도구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간편하고 재미있는 디자인을 담아내고 있다. 작은 찻잔이 아닌 일반적인 크기의 컵에 간편하게 걸쳐서 차를 우려낼 수 있는 차 거름망 제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쉽고, 빠르고, 간편한 차 도구를 통해 현대인에게 차 문화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손과 흙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후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흙이다. 흙에서부터 인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필요한 도구도 구할 수 있었으며, 문화도 발전시켰다. 또한 인류가 사용하던 생활도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던 것이 흙으로 만든 용기인 토기이다.[14] 이는 손으로 만들어낸 최초의 산물로서 깊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인간의 손은 창조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신체의 일부라 볼 수 있다. 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많은 것들의 의미와 흙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도자공예에서 손의 역할과 다양한 기법적인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선행연구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손의 역할과 의미

우리의 신체에서 손은 다른 신체 부위들보다 움직임이 자유롭고, 사람의 의지대로 동작을 조절할 수 있어 뛰어난 감수성을 지닌다. 또한 촉각의 특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신체기관이다. 특히 손끝은 감각을 인지하는 신경세포가 가장 세밀하게 분포되어있어 매우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질감이나 형태, 크기, 무게, 온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지각기능과 밀고, 당기고, 잡거나 쥘 수 있는 운동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윈(Darwin, Charles Robert, 1809~1882, 영국)에 의하면 팔과 손은 유인원이 이동할 때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는데, 이와는 다른 목적으로 쓰임에 따라 인류의 두뇌가 더욱 커지며 두뇌 용량이 확장되고, 이를 통해 손으로 하는 여러 가지의 일을 배울 수 있었다고 추론하였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손이 감각을 느끼는 것 이외에 사물을 잡거나

14) 서길용, 《도자실기, 기초이론과 실제》, 조형사, 1992, p.14.

집어 올리는 등의 정밀한 손동작이 가능해졌고 도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써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15] 손은 창조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도구로 수많은 역사를 이룩하여 왔다.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사냥과 채집을 하며 의식주를 해결했다. 이후로 인류는 점점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익히면서 기계를 만들고, 그 기술은 더 나은 기술로 발전하며 세상의 수많은 인공물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인류는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산업화된 현대사회에 살고 있지만 손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손으로 해오던 일들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그것은 이제 추억이 되어 신기술에 지친 현대인을 자극할 수 있는 감성요소로 다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최근에는 최첨단 기술에 손을 통한 자극을 더하는 접점을 찾아가며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금 아날로그(Analog) 감성[16]이 나타나고 있다.

실례로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터치스크린은 '만지는'이라는 의미가 담긴 '햅틱(Haptics)기술'[17]의 도입으로 개발되었으며, 이것은 인간의 지각능력과 융합된 디지털 기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의 사용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실제 노트와 같

---

15) 리처드 세넷 저, 김홍식 역, 《현대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 장인》, 21세기북스, 2010, pp.244~245.

16) 아날로그(Analog) 감성 : 아날로그는 그리스어의 닮음을 뜻하는 'analogia'에 어원을 두고 있다. 최근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사회의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것과는 반대로 인간이 중심이 되는 기술, 가치, 소신, 원칙 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디지털사회가 갖추지 못했던 디지털의 과학기술과 차가운 기계주의에 반대되는 인간의 내적인 가치와 정서를 대변하는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박원정, 〈디지털편집디자인에서 목판인쇄의 이미지를 응용한 아날로그감성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14.

17) 햅틱(Haptics)기술 : 햅틱은 그리스어의 '만지는'이라는 뜻의 형용사 'haptesthai'에서 온 단어이다. 각종 디지털기기에 진동이나 힘, 충격을 발생시켜 사용자가 촉감(觸感)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2000년대 중반이후 이 기술이 적용된 터치스크린 휴대전화가 출시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 생긴 화면에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또 원하는 책(e-book)을 다운받아 실제 손으로 책장을 넘기는 것과 같은 동작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을 탑재한 디지털카메라에 과거 수동으로 직접 필름을 넣고 렌즈를 조절하던 아날로그 필름카메라의 외형디자인을 입히고, 셔터를 누르는 버튼의 느낌까지 담아내어 기술은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필름카메라의 감성을 가득 채운 제품이 출시되기도 한다.

이렇게 '손'은 점차 기술 분야에서도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인간의 감성을 끌어내주는 역할과 함께 손끝으로 기기를 조작하고, 정보를 얻으며 인간과 기술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공예에 있어서 손의 역할과 함께 맞물릴 수 있다. 손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손에 의해 사용되어지며 이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 이것이 공예에 담긴 손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2) 도자공예에서의 손

도자공예에서 손과 흙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흙은 가소성(可塑性)[18]을 가지기 때문에 손으로 의도하는 대로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 누르는 힘의 세기만큼 얕거나 깊게 안으로 움푹 파이고, 밖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다. 또 꼬집으면 꼬집는 힘의 세기에 따라 두껍게 혹은 얇게 두께가 나타난다. 이처럼 직접적인 방법으로 흙을 만져 성형할 수도 있고, 칼이나 나무 도구를 잡고 간접적으로 기물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두들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성형할 수도 있다. 도자공예에서 도예가의 손은 이러한 흙의 물성을 표현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18) 가소성[plasticity, 可塑性] : 수분을 머금고 있는 점토에 외부의 힘을 가했을 때, 변형된 형태가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현상.

중요한 신체의 일부이자 도구이다. 핀칭이나 코일링의 핸드빌딩 성형은 물론이고, 물레 성형, 슬립캐스팅 성형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은 도예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만큼 손은 원초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도예가의 손은 도자공예에 있어서 매우 정교하고, 예민하며, 감각적으로 활용된다. 오랜 세월 동안 흙을 만져온 도예가의 손끝은 단단한 굳은살이 박여있다. 피부가 두꺼워져서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굳은살이 손에 퍼져있는 신경말단을 보호하기 때문에 손 끝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19] 표면을 만져보며 흙의 습도와 두들겨서 울리는 소리, 진동으로 알 수 있는 두께감 등 흙을 다루며 인지하는 모든 과정들이 기나긴 시간동안 지속적인 반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숙련된 결과물의 감각이다. 이는 일반적인 움직임으로는 체득할 수 없는 감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선천적으로 뛰어난 감각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도예가들의 손은 끊임없는 작업의 반복과 인내를 통해 일깨워진 경우가 더 많다. 도예가는 늘 자신의 손 끝 감각과 손의 움직임, 팔목과 팔을 좀 더 효율적이고 활용도 있게 움직이기 위해 반복의 과정을 겪으며 자신의 몸에 적응시킨다. 그렇게 만들어진 예민하고 정확한 손끝과 동작으로 흙을 만진다. 단순히 무념의 상태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것을 의식하며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도예가는 무형의 흙에서 유형의 무언가를 창조해내며, 그 안에 자신만의 미감과 그를 통한 가능성을 흙에 담아 제시한다.

---

19) 리처드 세넷 저, 김홍식 역, 《현대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 장인》, 21세기북스, 2010, p.249.

3) 손으로 흙을 다루는 성형 방법

과거 인류는 정주성(定住性)을 획득하며 토기를 만들어 내었다. 토기에는 손을 도구로 활용하여 무형의 흙을 그릇이라는 특정한 형태로 만들어 내는 창의성이 담겨있다. 또한 토기는 흙에 대한 최초의 경험적 산물이다.[20] 흙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였고, 그것을 형태화시키는 일이 시작된 것이다. 가소성을 가진 흙을 손가락을 사용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기법을 '핀칭(Pinching)'이라 일컫는데, 기벽을 손끝으로 꼬집어 만져주며 완성되는 그릇에는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남겨진 손자국은 완벽하지 않고 어딘가 엉성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는 과정에서 제작자가 표현해 내고자 하는 형태와 손자국에는 그의 사상과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 하나의 상징물이 되어 그 자체로도 깊은 의미를 갖는다. 이는 다시 사용자에게 전해지며 서로의 감성이 한데 얽혀 연결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와 제작자의 교감에 집중하였다. 손 성형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연구자의 감성적 미감을 담아 표현하고자 하였다. 흙을 다루는 모든 과정이 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작품제작에 주로 활용된 핸드빌딩(hand building) 성형 방법의 핀칭(pinching), 코일링(coiling), 점토판 성형 방법과 물레 성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핸드빌딩 성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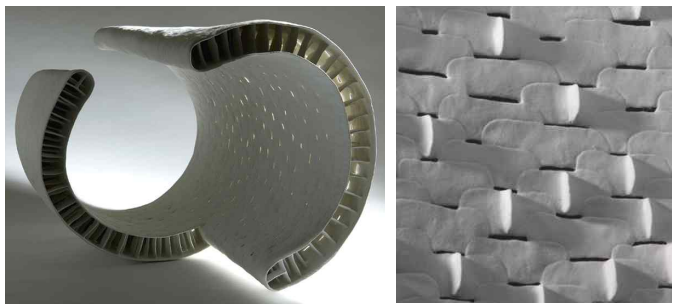
① 핀칭(pinching) 성형 방법

핀칭 성형은 우리말로 바꾸어 말하면 '주물러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

20) 김영민,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 공예에 대한 생각들》,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8, p.23~28.

다시 말해 손으로 주무르거나 꼬집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흙은 가소성을 가지기 때문에 손으로 가하는 힘이 기물의 표면에 손자국으로 고스란히 남는다. 이러한 핀칭 성형으로 생겨나는 표면 질감은 매우 흥미로워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품 제작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성형 방법이기 때문에 도예를 처음 배울 때 흙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핀칭을 이용하면 형태 변형이 손쉽기 때문에 다른 성형 방법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도판 14] 이춘복의 작품 (출처 www.myarts.kr)

핀칭 성형 방법을 작품에 적용한 사례로 이춘복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이춘복의 작품은 대부분 길이나 높이가 50cm가 넘는 크기를 가진 조형물이다. 자연스러운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운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 그의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길고 둥근 형태의 개체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작은 개체들은 모두 핀칭 기법으로 하나하나 성형하여 표현한 것이다. 코일을 밀어서 적당한 길이로 자른 흙을 손끝의 압력을 조절하여 얇게 눌러준다. 작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습도 조절이 중요하며, 가마에서의 변형을 막기 위해 안쪽에 중간 지지대를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 주며 쌓아 올린다. 또한 소지에 페이퍼를 같이 섞어주어 소지가 뒤틀리지 않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였다. 작품의 표면에 남아 있는 손끝의 흔적을 통해 그가 작품

에 담아낸 힘과 시간을 느낄 수 있다.

② 코일링(coiling) 성형

흙가래를 쌓아올리는 성형방식인 코일링 성형은 핀칭과 함께 흙을 처음 다루는 초보자에게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다. 코일링 성형은 매우 직관적인 성형 방법으로, 적당량의 흙을 가래떡처럼 손으로 길게 밀어 뱀이 똬리를 틀듯 한층한층 쌓아올려 원하는 크기나 형태에 맞춰 표현해 낼 수 있다. 빠르게 대칭형의 기물을 만들 수 있는 물레성형과는 달리, 오랜 시간 만져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즉흥적인 여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유로운 외형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조형작품을 만드는 데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비대칭인 형태를 제작할 때 유용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21]

[도판 15] 막달레나 오둔도의 작품

코일링 성형으로 제작된 경우 기물의 표면에 남겨지는 손자국을 그대로 두어 장식의 요소로써 활용하기도 하지만, 코일의 흔적을 모두 다듬어 없애는 경우도 있다. [도판 15]의 막달레나 오둔도(Magdalene Odundo, 영국)의 작품은 코일링 성형 방법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작품의 표면을 보면 코일링 성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광택이 나고 매우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다. 오둔도의 작업은 코일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굴곡을 없애 코일링 성형 방법을 기법이 아닌 형태의 구현으로 사용한

21) 앤서니 퀸 저, 임진호· 김세은 역《도자 디자인 스쿨》, 미진사, 2009, p.72.

경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는 달리 기물의 표면에 남겨지는 손자국을 조형적 요소로써 작품에 활용할 것이다. 이에 코일링의 흔적을 조형 요소로 표현하는 도리스 뱅크, 김그림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판 16] 도리스 뱅크의 작품

도리스 뱅크 (Doris Bank, 독일)는 주로 컵과 접시 같은 식기류와 높은 화병 등을 제작한다. [도판 16] 도리스 뱅크의 작품은 핀칭 기법을 활용하여 그릇의 표면에 음영이 명확히 나타날 정도의 세기로 손자국을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구연부의 높낮이가 위아래로 조금씩 울퉁불퉁하여 균일하지는 않지만, 기물의 표면에 남은 손자국에서는 규칙적인 리듬의 반복적 율동감이 느껴진다.

[도판 17] 김그림의 작품

[도판 17] 김그림의 작품은 코일에 다양한 색감을 넣어 서로 겹치게 쌓아올리는 작업을 담아내었다. 한가지의 색상이 점차 짙어지기도 혹은 옅어지기도 하는 그러데이션(gradation) 효과를 보여주는가 하면, 멀리 보이는 겹겹이 중첩된 산과 바다, 하늘 등의 자연의 풍경에서 얻는 수평적 선의 이미지를 다양한 색상의 코일로 중첩시켜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연의 모습을 선의 요소로 표현하여 우연적으로 겹쳐지는 선들의 관계를 통해 자유로움을 끌어내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③ 점토판 성형

여러 개의 점토판(粘土板)을 조립하여 각이 있거나 유기적이고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입체 형태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성형 방법이다. 또 점토판으로 물체를 감싸거나 덮어 외형을 본뜨는 방법에도 사용된다. 판과 판이 만나는 부착 면을 단단히 붙여 안정감 있게 성형하여야 한다. 판 성형의 작품은 형태가 비대칭인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또 점토판을 조립하기 전에 미리 넓고 평평한 표면에 도장을 찍거나, 손으로 누르기, 혹은 투각하는 등의 장식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

[도판 18] 이기조의 작품

점토판 성형 방법을 이용한 작품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손 성형방법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례로 이기조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이기조는 조선백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를 담아내는 작가이다. [도판 18]에 보이는 그의 작품들은 기하학적 기형을 하고 있지만,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지 않은 사각 도판을 중첩하여 붙이거나 교차하여 표현하였다. 손의 움직임으로 흙의 표면에 나타나는 텍스쳐는 작품 표면에 드러나는 성형 과정의 흔적이다. 그는 성형에 쓰이는 점토판 하나하나를 며칠 동안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만드는 그 시간 동안 흙과 손은 깊이 교감하고 친밀감을 나누게 된다고 말한다.

(2) 물레 성형 방법

물레 성형은 원심력을 이용하여 원형의 대칭형 기물을 단시간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도예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떠올리는 성형 방법이다.

그 형태는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되었지만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고, 과거 손으로 돌리던 것부터 현대의 전기 물레까지 발전하여 왔다. 핸드빌딩 성형 방법에 비해 물레를 비롯하여 제작에 필요한 도구가 여러 가지 있다.

물레 성형 방법은 회전하는 물레판 위에서 손으로 형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물의 표면에 회오리 같은 손자국이 남는다. 이는 핸드빌딩의 손자국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속도감과 회전력을 담아낸다. 또 기물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관되는 형태라 할지라도 어딘가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독자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각의 기물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미감과 개성을 지니게 된다.[22]

4) 복합 성형 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다기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핸드빌딩 성형 방법과 물레 성형 방법을 조합하여 복합적인 방식을 적용하려고 한다. 핸드빌딩 성형으로는 정확한 원형의 구현이 어렵고, 소성 과정에서 형태 변형이 쉽기 때문이다. 또한 실용성을 갖춘 다기를 위해서는 물레 성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핸드빌딩 성형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의 유용함과 손이 표현하는 조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을 통해 복합 성형의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고희숙, 이민수, 김정화의 작품을 통해 그들이 어떠한 의도로 복합 성형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로 도출된 작품들의 조형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슬립캐스팅 성형과 물레 성형의 복합

고희숙의 작업은 슬립캐스팅 성형과 물레 성형의 복합으로, 석고틀에서

22) 앤서니 퀸 저, 임진호, 김세은 역, 《도자 디자인 스쿨》, 미진사, 2009, p.76.

[도판 19] 고희숙의 작품

성형한 기물을 탈형하기 전에 주입구 부분의 틀만 탈형한 후 석고 틀을 물레판 위에 올려놓고 상단부를 물레로 돌려주어 완성한다. 슬립캐스팅 기법은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나의 틀에서 한 가지 형태의 기물만을 만들어낸다는 점과 소성 과정에서 형태 변형이 나타나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물에 물레 성형을 더하여 흙의 입자 배열을 잡아줌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흔적을 남김으로써 새로운 수공의 개념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물에 남겨진 흔적들은 모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량생산과 수공(手工)이 하나의 기물 안에 담기며 공존하게 된다. 이렇게 남겨진 두 개의 상반되는 흔적은 교묘하게 어울리며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고희숙은 그녀의 작품을 통해 같은 물건이 반복적으로 탄생하는 대량생산에서 벗어나 공예와 산업 간의 매개체 역할로서의 의미를 담아내었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미감과 경험을 제공한다.

(2) 슬립캐스팅 성형과 물레 성형, 기계 물레 성형의 복합

이민수는 슬립캐스팅과 물레 성형 그리고 기계 물레 성형 세 가지 성형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작기법인 '이장물레성형기법'을

[도판 20] 이민수 작품의 세부

[도판 21] 이민수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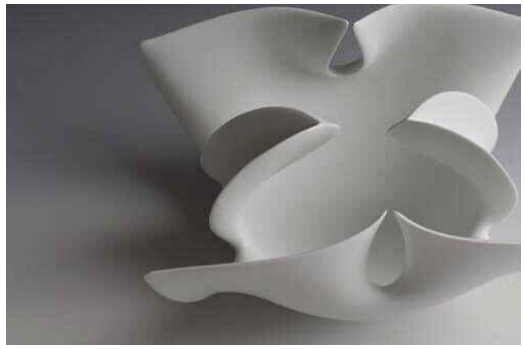
개발하여 작품에 적용하였다. '이장물레성형기법'은 물레 위에 석고몰드를 올려놓고 이장을 부어 물레를 차듯이 기물 벽면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다.[23]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벽이 물레의 회전력에 의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흙 입자의 밀도가 높아지고, 슬립캐스팅으로 제작된 기물에 비하여 안정적이어서 형태 변화가 최소화 된다는 것이다. 또한 물레 성형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매우 얇은 기벽부터 슬립캐스팅으로 형성하기에는 매우 두꺼운 기벽까지 성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는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쌓인 이장은 적층구조를 이룬다. 각층마다 이장의 색상을 바꾸기도 하며 작품의 다양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제작되는 그의 작품은 기물의 단면에서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민수의 '이장물레성형기법'은 슬립 캐스팅 성형의 단점으로 손꼽히는 형태의 변형을 최소화시키고, 물레 성형보다 수월하게 같은 기물을 반복하여 성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자동 기계 물레 성형처럼 많은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있다. 이처럼 그의 복합 성형 방식은 각각의 성형방법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주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23) 이민수, 〈이장물레성형기법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16.

(3) 물레 성형과 핸드빌딩 성형의 복합



[도판 22] 김정화의 작품

김정화의 작품은 '생명'이라는 주제로 '꽃'의 조형미를 담아낸다. 꽃의 몸체를 표현하기 위한 형태로 원기둥이나 볼(bowl) 등의 원형기물을 물레로 성형한 후, 기물의 구연부를 잘라 원하는 디자인으로 형태를 재구성한다. 이때 형태의 변형을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핸드빌딩 성형 방법을 이용한다. 부분적으로 자르고 붙여 핀칭 기법으로 변형하거나, 덧붙이기를 하여 건조한 다음 유연하면서도 탄력 있는 선을 만들어 내기위해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완성한다.[24]

김정화의 복합 성형 방법은 식물생장의 원동력과 운동성을 느낄 수 있는 조형적 이미지를 추출해내기 위한 요소로 사용된다. 물레 성형과 슬립캐스팅 성형만으로는 이끌어내기 어려운 형태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합 성형 방법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로써 제작과정에서 형태의 변화에 따른 움직임이 예상 밖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정형부터 비정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3. 작품 제작

1) 제작 의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현대인은 기술과 기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정

24) 김정화, 〈꽃의 형상을 통한 생생불식(生生不息)의 표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2.

서적 욕구를 갈망한다. 최근 이러한 내면의 정서적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문화요소로서 차 문화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차의 부흥과 함께 찻자리를 채워주는 다기의 개발 또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차 생활에서 사용하는 다기가 제작과 사용에 있어 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손에 의한 조형미와 실용성을 함께 갖춘 다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핸드빌딩 성형방법과 물레성형을 복합적으로 사용해보고자 한다.

2) 제작 과정과 작품 설명

(1) 형태

제작에 앞서 형태의 조형 요소로서 조선시대 백자의 조형미에 접근해 보려고 한다. 화려한 기교로 긴장감 넘치는 서구의 미감과는 달리, 조선백자는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고, 인간적이며 소박한 인성을 담아낸다.[25] 그리고 단순하지만 우아하고 넉넉하며, 간결한 담백미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조선백자의 복스러운 둥근 형태에서 느껴지는 풍만함과 너그러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각박한 삶에 요구되는 감성을 채워줄 미감이라 생각한다. 이에 연구자는 조선백자의 기형을 다기의 형태에 적용하고자 한다. 제작과 사용을 고려하여 총 세 가지의 기본형을 선정하였고, 형태에 따라 항아리형, 물방울형, 원통형으로 지칭하였다.

① 항아리(원호(圓壺))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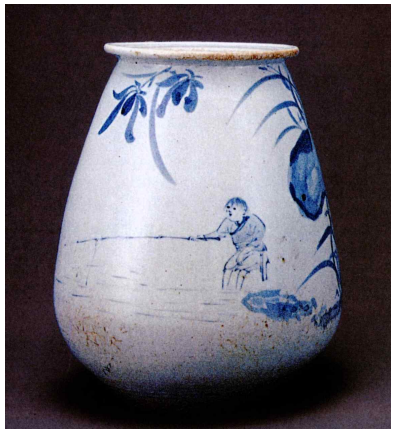
둥그런 형태의 항아리형은 [도판 23]의 백자 철화 대나무 무늬 항아리

25) 임주연, <도자제 다기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조선시대 백자의 형태와 문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3~6.

[도판 23] 백자 철화 대나무 무늬 항아리

에서 기형을 가져왔다. 거의 구형(球形)에 가까운 몸통은 구연부(口緣部)에서 넉넉한 형태를 따라 내려오면서 몸통의 중앙부에서 가장 풍만함을 주는 형태이다. 구연부의 지름이 전반적으로 굽의 지름보다 크며, 몸체는 타원형으로 주판알과 흡사한 형태를 가진다.

② 물방울형



[도판 24] 청화 백자 산수문 떡메병

구연부에서 아래로 가면서 밖으로 점점 넓게 퍼지면서 바닥은 둥글게 마무리되는 형태이다.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고, 전체적인 모양이 물방울처럼 둥글하여 안정감을 준다. [도판 24]의 좌측 청화 백자 산수문 떡메병의 기형을 본뜬 형태이다. 이는 떡메[26]처럼 생겼다하여 '떡메병'이라 불리며, 꽃을 꽂아두었던 화병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부터 나타나는 새로운 기형으로 실용에 충실하도록 제작되어 기벽이 두텁고 중후한 조형성을 보여준다.[27]

---

26) 떡메병 : 메는 말뚝을 박거나 짚을 바수거나 떡을 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나무망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떡메는 떡을 만들기 위해 찐 쌀을 떡판에 놓고 치는 메를 일컫는다.
박호석· 안승모, 《한국의 농기구》, 2001.6.25, 어문각. [네이버 지식백과]

27) 김재열, 《KOREAN Art Book 백자·분청사기 Ⅰ》, 애경, 2000, p.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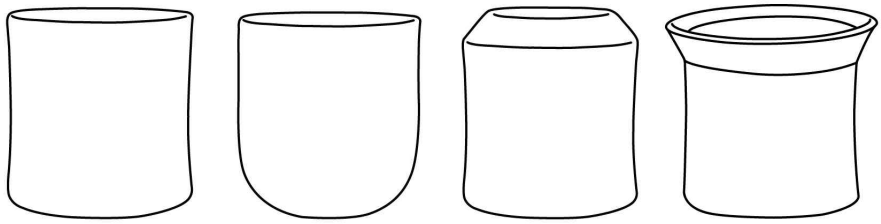
③ 원통형

[도판 25] 청화 백자 사군자문 지통

[도판 25]의 청화 백자 사군자문 지통에서 온 원통형은 구연부부터 바닥에 닿는 굽 부분까지 곧게 이어지는 형태로 아무런 문양이 없으나 단아하고 간결함이 멋스러운 형태이다. 옆면을 보면 날카롭기보다 아래로 조금 널찍해지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④ 변형 원통형

기본 원통형에 조금씩 변형을 주었다. 아랫부분이 둥글어지며 굽이 좁아지는 형태와 몸통은 곧게 올라오다가 상단 1/5정도 지점에서 45°정도 안쪽으로 오므라들거나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다.



[도판 26] 변형 원통형

(2) 복합 성형 방법으로 제작한 작품

성형에는 한 기물에 핸드빌딩 성형 방법과 물레 성형 방법을 조합하여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핸드빌딩 성형 방법으로 기물표면에 나타나는

손자국을 조형요소로서 담아내며, 소성 후 기물의 휨과 제작과정의 용이함 등 핸드빌딩 성형이 채워주지 못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물레 성형 방법을 통해 보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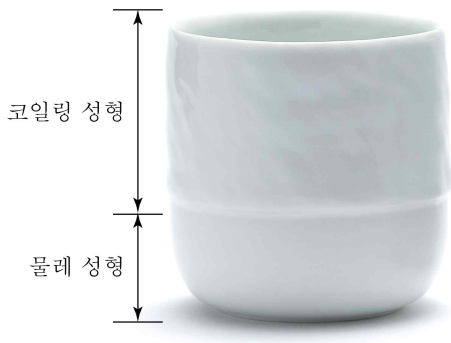
물레와 코일링의 복합 성형은 기물의 바닥부터 일정 부분의 높이까지 물레로 성형한 후, 코일을 쌓아올리는 방법이다. 물레와 핀칭의 복합 성형은 기물의 형태를 물레 성형한 후, 흙 장식을 도구를 이용하여 기물표면에 눌러 붙이는 방법으로, 장식에 핀칭의 효과를 담는 것이다.

이렇게 제작된 기물들은 같은 형태라 할지라도 핸드빌딩 성형기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매번 표현되는 느낌이 다르다. 이는 수공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그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 각각의 성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따른 연구자의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물레·코일링 복합 성형-1

'물레·코일링 복합 성형-1'은 바닥에 닿는 기물의 굽 부분부터 일정 부 분까지 물레로 성형한 후, 코일을 쌓아올리는 방식이다. 우선 물레 성형으로 제작한 후, 눌러도 형태가 변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시킨다. 그 후, 따로 제작한 굽통[28]에 기 물을



[도판 27] '물레·코일링 복합 성형-1'

28) 굽통 : 물레 성형작업에 쓰이는 물건으로, 기물의 굽을 보호하거나 표면을 가공하거나 다듬을 때 사용한다. 기물의 외형에 손상이나 변형이 없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기물보다 크기가 조금 커야하며, 과거 성인 남자가 머리에 쓰던 갓의 형태나 항아리 형태로 제작한다. 보통 기물을 뒤집어 꽂아 굽을 깎기 때문에 그 크기에 맞도록 깎아낼 수 있는 흙을 사용하여 제작하지만, 간

넣어 고정시키고, 최종 기물의 높이보다 1~2cm정도 여유 있게 코일을 쌓아 올린 다음 느린 속도로 물레를 돌려 기물의 구연부를 만져주어 완성한다.

물레 위에서 구연부를 한 번 더 만져주는 과정은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물레의 원심력에 의한 회전이 기물의 형태 변형과 사용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는 손으로 만든 원형을 정원형으로 잡아주며, 불규칙했던 흙의 입자 배열에 밀도를 높여주어 소성 후의 형태 변형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다. 또한 뚜껑이나 거름망과 같은 구성요소가 구연부와 이격 없이 서로 잘 맞게 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작품 1]~[작품 5]를 통해 핸드빌딩과 물레 성형의 복합 성형 방법을 적용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작품 1] 찻잔 - 1 ∅70×80mm

혹 석고로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다.

[작품 2] 찻잔 - 2 ∅70×80mm

[작품 1]과 [작품 2]는 찻주전자에서 우려낸 차를 덜어 마시거나 간편하게 티백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찻잔이다. 원통형에 굽 부분을 직선과 곡선 두 가지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같은 형태와 크기의 기물에 서로 다른 성형방법으로 다양성을 주어 나타나는 질감의 면적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진다. 넓은 면적에서 손자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시각적으로 자연스러운 촉감이 느껴지고, 반대로 물레에서 나온 매끈한 몸통이 주를 이루는 형태는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두 성형방법이 만나는 경계선에는 높이 차이를 약간 주어 손으로 잔을 감싸 안았을 때 손가락이 걸쳐지며 안정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보다 위생적인 사용을 위하여 차가 담기는 잔의 내부와 입이 닿는 코일링 부분에는 투명유로 시유하였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물레 성형부분은 서로 대비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 매트유로 시유하여 손이 직접 닿을 때에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작품 3] 1인 다기 - 1 ∅65×110mm

[작품 4] 1인 다기 - 2 ∅75×85mm

[작품 3]과 [작품 4]는 찻잔과 거름망, 뚜껑이 한 조가 되는 1인 다기이다. [작품 1], [작품 2]와는 달리 각각의 성형 방법의 범위를 고정시켜 통일감을 주었다. 두 손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크기이며, 밑을 둥글게 변형한 원통형을 적용하여 정갈하고 단아한 느낌을 주었다. 거름망을 꺼내도 뚜껑이 닫힐 수 있도록 거름망과 뚜껑에 이중의 턱을 주어 사용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이와 같이 잔과 거름망, 뚜껑이 한 조를 이루는 기물은 어느 것 하나가 커서 들어맞지 않는다거나 혹은 너무 작아서 이격이 크게 벌어지게 되면 함께 구성을 이루는 기물 모두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1인 다기로서의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신중을 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특히 유약이 입혀지는 두께까지 고려하여 크기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름망과 뚜껑은 물레성형으로 제작하여 소성 후의 변형에 문제가 없지만, 잔의 경우 구연부가 코일링 성형으로 제작되어 변형의 위험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물과 기물이 서로 크기가 잘 맞아야 하는 경우에는 코일을 쌓아 올린 뒤 물레에서 한 번 더 잡아주는 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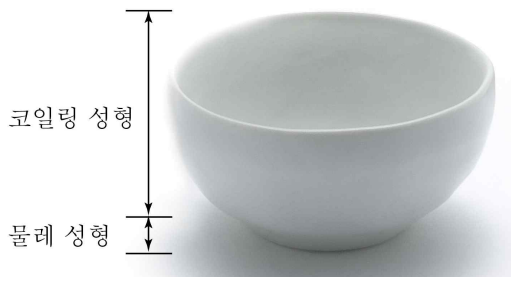
[작품 4]는 [작품 3]과 같은 밑이 둥근 변형 원통형으로 코일링 성형 부분에 푸르고 맑은 색감의 백자와 조화롭게 어울리는 연한 보랏빛과 푸른빛의 색소지를 사용하여 [작품 3]과는 색다른 분위기를 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잔의 지름보다 뚜껑과 거름망의 지름 크기를 크게 제작하여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용감을 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작품 5] 6인 다기 - 1 찻주전자 185×90×110mm

[작품 5]는 잎차를 우릴 때 사용하는 도구 중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찻주전자와 물 항아리, 버림 그릇, 식힘 사발, 찻잔과 잔 받침, 찻통, 화병까지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코일링 성형 부분이 좁은 면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손자국의 음영이 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연한 푸른빛의 색소지를 사용하였다. 찻주전자는 옆 손잡이 형으로 제작하였으며, 거름망을 함께 구성하여 찻잎이 한 번 더 걸러질 수 있도록 사용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형태는 구연부가 안팎으로 좁아지고 벌어지는 변형 원통형이다. 찻주전자와 물 항아리, 찻통은 뚜껑이 함께 구성되는 기물이기 때문에 안으로 오므라드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이외의 다른 기물은 구연부를 통해 찻물이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사용성이 좋아야하므로 구연부가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가 유용하다.

② 물레・코일링 복합 성형-2

‘물레・코일링 복합 성형-2’는 앞서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물레로 만든 원형의 판 위로 코일을 올려 성형한다. 이렇게 제작된 기물은 물레 성형의 느낌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의미없는 작업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물레・코일링 복합 성형-1’과 같이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코일링 성형 방법으로 기물을 성형할 때 바닥을 손이나 밀대로 판을 만들어 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바닥을 만들게 되면 굽을 깎을 때 바닥이 얇아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많고, 아무리 반듯하게 굽을 깎아내어도 소성 후에 휘는 형태 변형이 일어난다. 휜 굽은 평평한 바닥에 놓았을 때 안정감이 없고 까딱거려서, 뜨거운 물을 담아 사용하는 다기는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때문에 소성 과정에서 형태를 탄탄하게 유지하는 물레 성형으로 바닥을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코일링 성형을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물레 위에서 구연부를 잡아주는 과정을 거쳐 형태와 기벽을 탄탄하게 잡아주어야 한다.



[도판 28] ‘물레·코일링 복합 성형-2’의 구성

이어서 ‘물레・코일링 복합 성형-2’를 적용하여 제작한 [작품 6]과 [작품 7]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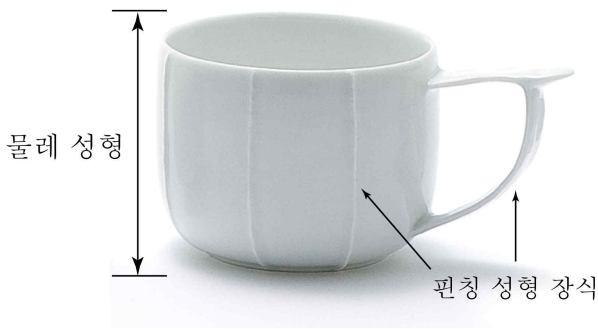
[작품 6] 2인 다기 - 1 찻주전자 160×110×90mm

[작품 7] 2인 다기 - 2 찻주전자 120×85×80mm

[작품 6]과 [작품 7]은 2인이 간편하게 잎차를 즐길 수 있도록 찻주전자, 식힘 그릇, 찻잔, 다식접시, 찻통 등을 구성한 작품이다. 찻주전자와 식힘 그릇에 같은 형태의 물대를 붙여주어 통일감이 들 수 있도록 하였다. 항아리형으로 제작하여 풍만하고 넉넉한 형태미를 느낄 수 있다. 매트유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유면과 손자국이 함께 어우러져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촉감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도록 했다.

[작품 6]은 옆 손잡이 형태로 제작하여 좀 더 전통의 다기에 가까운 미감을 보여주고, 뒷 손잡이 형의 [작품 7]은 전체의 기형을 보다 균형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또한 뚜껑 받침을 제작하여 찻주전자의 뚜껑을 올려놓거나, 거름망을 꺼내놓을 때 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물레·핀칭 복합 성형



[도판 29] '물레·핀칭 복합 성형'의 구성

[도판 30] 백자 톱니문 장식 제기

'물레·핀칭 복합 성형'은 손으로 꼬집은 듯 한 느낌을 기물 표면에 장식으로써 표현한다. [그림 36]의 백자 톱니문 장식 제기는 이 기법의 모태가 되는 백자이다. 표면에 옅게 나타난 물레 성형의 흔적과 함께 톱니문 장식이 세로줄로 사방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톱니문 장식을

토대로 하여 좀 더 간결하고 정돈된 표현으로 작품에 적용하였다.

기물의 몸통은 물레 성형을 하고 얇게 민 코일이나 작은 구슬 모양의 흙을 기물 표면에 도구로 눌러 붙인다. 이때 나타나는 눌러 붙인 자국을 그대로 남겨두어 손으로 꼬집어 나타낸 핀칭의 효과를 표현하였다. 또한 기물을 손에 쥐었을 때 표면 장식이 손에 닿으며 촉각적인 효과와 미끄러지지 않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이 기법은 물레에서 기물의 성형을 모두 끝마친 후에 몸체에 장식을 덧붙여야 하기 때문에 기물과 장식의 습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식을 눌러 붙이는 힘에 의해 기벽이 망가지지 않도록 장식을 붙여야하므로 적당히 힘을 받을 정도의 두께로 성형해야 한다.

앞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다음의 [작품 8]부터 [작품14]에 활용된 장식의 요소와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작품 8] 1인 다기 - 3 ∅75×85mm

[작품 8]은 찻잔과 거름망, 뚜껑이 한 조가 되는 1인 다기로 물방울형을 적용하였다. 표면에는 짧은 선을 임의로 붙여 빗줄기의 느낌을 주었

[도판 31] [작품 8]의 세부

다. 덧붙인 자국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살 깃처럼 방향성을 주어 표현하였다. [작품 3], [작품 4]의 거름망이 찻잔의 구연부에 걸쳐지는 1인 다기와는 달리 찻잔 안쪽 바닥면에 얕은 홈을 파주어 거름망이 홈에 걸려 고정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리고 홈에 거름망이 고정된 상태로 뚜껑이 덮일 수 있도록 뚜껑 역시 안쪽으로 홈을 내어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였다.

[작품 9] 찻주전자 220×100×100mm

[작품 9]와 [작품 10]은 같은 주전자를 서로 다르게 구성한 작품이다. 몸체의 형태를 기본 원통형과 굽 부분을 안쪽으로 둥글린 변형 원통형 두 가지로 제작하였다. 몸통 이외의 부분은 동일하게 성형하여 비슷하면서도 미세하게 달라 보이는 쌍둥이 찻주전자의 느낌을 준다. 주전자의 구연부에 맞도록 거름망도 함께 제작하여 차를 우릴 때 찻잎이 걸러질 수 있도록 하였고, 거름망을 빼도 뚜껑이 헐겁지 않도록 뚜껑에 이중으로 높

이를 주어 사용성도 고려하였다.

표면의 장식은 지름이 1mm정도 되는 얇고 긴 코일을 기물의 바닥부터 구연부까지 세로로 붙여준다. 이때 물대와 손잡이의 부착을 마친 후에 장식을 붙여주어야 정확한 각도와 간격으로 맞추어 장식할 수 있다.

[작품 10] 3인 다기 찻주전자 220×100×100mm

[작품 10]은 찻주전자와 뚜껑 받침, 수저 꽂이, 3개의 찻잔과 찻잔받침을 함께 구성하여 3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다기이다. 뚜껑 받침과 수저 꽂이가 있어 보다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총 8개의 선 장식이 원통형의 형태를 따라 형성되어 외형이 더욱 돋보이는 효과도 준다.

[작품 11] 1인 다기 - 4 ∅70×90mm

[작품 11]은 앞서의 작품에서 표현한 세로로 들어간 선 장식과 다르게 가로의 형태로 붙여주었다. 기물의 지름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높이가 높은 원통형에 가로의 선 장식이 들어가 기물을 보다 안정감 있게 보이도록 해준다. 가로의 선 장식은 간격을 서로 다르게 하여 사용자가 찻잔을 손에 쥐었을 때 손가락이 걸쳐져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적인 요소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작품 12] 찻잔 - 3 95×65×75mm

[도판 32] [작품 12]의 세부

[작품 12]는 동일한 몸통 형태와 장식에 각각 다른 형태의 손잡이를 만들어 붙여 주었다. 손잡이는 모두 핀칭 성형하여 제작하였다. 형태는 손에 쥐었을 때 편안하고, 보다 안정감이 느껴지도록 디자인하였다.

[작품 13] 5인 다기 찻주전자 150×90×90mm

[작품 13]은 찻주전자와 식힘 그릇, 찻잔, 찻통으로 구성된 5인이 사용

할 수 있는 다기이다. 다른 작품의 찻주전자와 달리 [작품 13]의 찻주전자 뚜껑에는 손잡이가 없다. 뚜껑 받침이 없는 경우 뚜껑을 열어놓을 때 보통 바닥에 놓게 되는데, 이때 뚜껑의 굽이 바닥에 닿게 되어 청결하게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뚜껑을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뚜껑에 손잡이가 있으면 기우뚱하게 놓이게 되어 안정적이지 못하며, 자칫 파손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뒤집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뚜껑 손잡이를 붙이지 않았다. 대신 사용할 때 손잡이와 뚜껑을 동시에 잡아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잡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손끝이 걸쳐질 수 있도록 코일 장식을 한 번 더 붙여주었다. 몸통에도 아래쪽으로 가로선의 코일장식을 붙여 찻잔을 쥐었을 때의 유용성을 고려하였다.

[작품 14] 6인 다기 - 2 찻잔 ∅70×50mm

[작품 14]는 찻주전자와 뚜껑 받침, 식힘 그릇, 찻잔, 찻통, 물항아리, 버림 그릇의 구성으로 6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기이다. 많은 사람이 함께 마시는 자리에서 두 가지 종류의 차를 함께 우려낼 수 있도록 2개의

[도판 33] [작품 14]의 세부

찻주전자를 제작하여 구성하였다. 물방울형의 형태를 적용하여 풍만하고 탐스러운 분위기를 담아내었다. 표면의 점장식은 지름 2~3mm정도의 구슬 모양을 임의의 위치에 사방으로 눌러 붙여 [도판 33]과 같이 가운데가 봉긋하게 솟아오른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손끝으로 중앙을 잡고 위로 잡아당긴듯 하여 핀칭 기법의 효과를 주었다.

Ⅲ. 결론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차 문화’는 삶의 여유와 쉼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문화 코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도예가들의 차 도구 개발 또한 이러한 변화패턴에 맞게 좀 더 세분화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다기제작연구를 함에 있어서 쓰임새의 중요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만들고 사용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 인간의 ‘손’에서 시작된 ‘손자국’을 조형적 요소로써 활용한 백자다기를 제작하였다. 작품 제작에 앞서 우선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차 문화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나타난 차 도구의 변화에 좀 더 세밀하고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와 같은 대중화에 대한 노력을 통해 차가 꾸준히 그 전통적 조화 속에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차 도구 개발과 함께 많은 연구와 개발이 요구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품 제작에 앞서서 차 도구 중 잎차용 다구를 중심으로 명칭과 그 쓰임새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각각의 구성들의 용도와 갖추어야할 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이에 실용과 기능, 보관, 조형성, 편의성을 담은 다양한 차 도구 제작사례를 통해 각각의 의도와 표현방식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연구자의 다기제작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본 연구에서 핵심적 조형요소인 ‘손자국’을 표현하는 ‘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손의 역할과 그 변화, 도자공예에서 손으로 형태를 구축하는 핸드빌딩과 물레성형방법에 대하여 도

예작품에 활용된 예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성형 방법을 복합적으로 응용하여 이루어진 작품 연구를 통해 복합성형방법을 적용과 그에 따른 조형적 특징과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복합성형방법을 작품제작에 도입한 이유는 가장 먼저 핸드빌딩 성형으로 나타나는 손자국을 기물에 담아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다기를 늘 가까이에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물레 성형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핸드빌딩 성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표면에 나타나는 조형성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방식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물레・코일링 복합 성형-1, 2' 와 '물레・핀칭 복합 성형'이라고 명칭 하였다. '물레・코일링 복합 성형-1'은 물레과 코일링 성형이 함께 밖으로 드러나 보이도록 하였으며 다섯 작품을 제작하였다. '물레・코일링 복합 성형-2'은 두 작품으로, 1번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지만 코일링 성형만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였다. '물레・핀칭 복합 성형 방법'은 기물의 형태를 물레 성형으로 만들고, 표면의 장식으로 흙을 덧붙여 주어 핀칭의 효과를 의도하였으며, 일곱 작품으로 구성하여 보았다. 이러한 복합 성형 방법의 사용으로 제작된 작품을 통하여 다음의 세 가지 효과를 얻었다.

첫째, '손'을 통해 얻은 조형적 미감이 담긴 손자국을 표면에 극대화시켜 표현할 수 있었다.

둘째, 물레 성형의 원심력에 의한 회전으로 정원형의 형태 구축과 소성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 변형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셋째, 사용자를 고려하여 실용기로서 사용에 용이할 수 있도록 섬세한 제작을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물레와 코일링, 핀칭 성형 방법의 조합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조합으로 나타난 복합 성형 방법을 통해 연구자가 의도한 손자국을 기물의 표면에 여실히 드러나도록 표현할 수 있었다. 제작 과정에서 남겨진 손자국은 찻잔을 감싸 안은 사용자의 손과 닿으며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의 감성 교감이 이루어지는 소통을 의도하였다. 또한 각각의 성형 방법의 조합을 통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부각시키며 또 다른 기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흙을 다루는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 작품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개선할 점은 다음과 같다. 표면에 나타난 손자국을 좀 더 명확하고 두드러지게 표현해줄 수 있는 지속적인 유약연구와 함께 습도에 민감한 백자소지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랜 시간 흙을 만짐으로써 축적되어 나타나는 손맛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얻어낸 미감을 통해 작품에 좀 더 깊이 있게 담아낼 수 있도록 세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각각의 제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법의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양산을 고려한 보다 나은 제작 방법을 통해 작품이 아닌 제품으로서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인 다기 생산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권영필 외, 《12인의 미학자들을 통해 본 한국미론 100년, 한국의 미를 다시 읽는다》, 돌베개, 2005

김영민,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 공예에 대한 생각들》, 한국공예문화진흥원, 2008

글렌 C 넬슨 저, 임무근·신광석 역, 《도자예술》, 미진사, 1995

김재열, 《KOREAN Art Book 백자·분청사기 Ⅰ》, 애경, 2000

김재열, 《KOREAN Art Book 백자·분청사기 Ⅱ》, 애경, 2000

리처드 세넷 저, 김홍식 역, 《현대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 장인》, 21세기북스, 2010

방병선, 《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 돌베개, 2010

서길용, 《도자실기, 기초이론과 실제》, 조형사, 1992

시주희·박남이, 《북유럽 생활 속 디자인》, 부즈펌, 2013

신수길, 《차 생활의 모든 것, 차도구》. (사)한국차인연합회·이른아침, 2012

앤서니 퀸 저, 임진호, 김세은 역, 《도자 디자인 스쿨》, 미진사, 2009

간행물

《아름다운 삶을 가꾸는 차 이야기, 차인》, 한국차인연합회, 2011년 01/02월호, 03/04월호, 05/06월호, 09/10월호, 2013년 03/04월호

《키친저널》, 한국주방생활용품진흥협회, 2012년 5월호

학위논문

강기호, 〈기하학적 요소를 이용한 차도구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건우, 〈차문화공간의 현대적 해석과 공간조성 연구 - 한국적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그림, 〈선으로 쌓아올린 풍경〉,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미숙, 〈<전통차 자동 음료기기>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 사무공간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김문숙, 〈현대 차생활의 명상적 접근 : 사념처 수행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성희, 〈핀칭을 이용한 다기SET 제작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종균, 〈현대 차문화의 특성과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정화, 〈꽃의 형상을 통한 생생불식(生生不息)의 표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효은, 〈한국 차문화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화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원정, 〈디지털편집디자인에서 목판인쇄의 이미지를 응용한 아날로그감성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민수, 〈이장물레성형기법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이혜원, 〈현대인의 차생활을 위한 도제 차도구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임주연, 〈도자제 다기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조선시대 백자의 형태와 문양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학술지

김제중, 〈문화콘텐츠 소재로서의 차문화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일러스트학회, 2010

전시도록

《끽다락 : 차와 하나되는 즐거움 展》, 재단법인 아름지기, 2012
《작은탐닉, 반달미술관 기획전 세라믹라이프》,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 2013
《조선도자수선》,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2002
이기조, 《2005 From White Porcelain, Free From White Porcelain》, 2005

기사 및 웹사이트

〈이마트, 보성녹차 소비 촉진 나섰다〉, 연합신문, 2012.06.03.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도리스 뱅크(Doris Bank) 홈페이지 www.doris-bank.de
마이아츠 www.myarts.kr
막달레나 오둔도(Magdalene Odundo) 홈페이지
www.magdaleneodundo.com

세븐비(7bee) 홈페이지 www.7bee.co.kr

인현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ceramic17

클레이파크 www.claypark.net

ABSTRACT

A Study on Making of White Porcelain Tea Wares with Handmarks
- With a focus on the compound forming method -

Kwon, Sung Eun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rapid economic growth and advance of technology allowed the human kind in the modern age a convenient living environment. However, in a world dominated by machines, people began to crave for emotional values, and they seek for enjoying the culture and leisure through various experiences as they live a life not like everyone else's. Such a trend boosted the popularity of the tea culture. In the bustling lives of the modern times, the tea culture is becoming an important element of the modern life as the people may find the time to relax and enjoy physical and mental satisfaction. In response, the development of tea wares also requires newer efforts to enable development into new progresses.

The traditional tea wares we usually think of may be practical in their us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notice any changes in their designs from the past. But, as the designs of tea ware resulting from recent tea ware design studies are focused on new forms only, making them obsessed of the aesthetic values in their appearances, neglecting the importance of the practical uses. Tea wears needs to be practical in their designs, so that they could be used frequently in our daily lives. For this reason, an artist who builds tea wares should keep in mind that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tea wares that could fit in the hands of the users and be used conveniently, and comfortably.

Tea wares are built by the hands of the artisans, and used in the hands of the users. Therefore, in this study, I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hands' are closely related to the tea wares and began designing tea wares with plasticity of the hands and the practicality as the tea wares are received by them.

The basic forms of the tea wares were chosen from the three basic forms of the white porcelain of Chosun dynasty that are pleasantly plump and suitable for the designs of tea wares. For this reason, we took the crock type inspired by the form of arcs, the water drop shape of a rice cake mallet bottle, and the cylindrical shape of the cylindrical paper containers. In shaping the designs of the tea wares, we used the motif of the hands. In building one object, I combined the hand-building method and use of the spinning wheel. With the use of hand-building method, we endowed plasticity to the object by leaving

hand marks on the surface, while the objects were further processed by the spinning wheel method to make it more convenient to use. The combination of the spinning-wheel forming and the coiling forming methods were divided into two options. We proposed a compound formation method, where the traditional spinning-wheel method was joined by pinching forming techniques for ornamental eff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practical, convenient-to-use tea wares that steel bear the plastic, aesthetic values of the hands. As we use tea wares made in this style, the users may experience the hand marks of the makers during the making process, resulting in an emotional communion between the two. Also, the plastic element of the hand building method and the practicality of the spinning-wheel method are combined with a view to satisfy both requirements. Future study efforts of mine will be focused on easiness in production and usage as the tea culture can cease to be difficult and forbidding and become more friendly and accessible.

Key words: tea culture, tea ware, hand, hand-building forming, compound forming